

폐갱도를 활용한 「지하 데이터센터」 구축

建 議 書

2022. 3. 7.



태백상공회의소

■ 건의요지

- 태백시를 비롯한 강원 남부 폐광지역은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정책 이후 뚜렷한 대체 산업 발굴이 되지 못하여, 30여년이 지난 현재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현재 전국 가행 탄광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도계광업소, 화순광업소와 민영 탄광인 경동광업소까지 단 4개의 탄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석탄공사의 3개 탄광 폐광에 대해 2023년부터 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조기 폐광하기로 노·사·정 협의회에서 합의(2022년 3월 2일)가 이루어지면서 폐광에 따른 대체 산업 유치가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석공 장성광업소는 현재 태백 지역 경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폐광 이후 확실한 대체 산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구 유출과 실업률 증가는 물론 지역산업이 붕괴되어 지역이 소멸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태백시는 수 십년간 폐광을 대비하여 웰니스-항노화 사업, 치매 등 노인요양사업, 슬롯머신 사업, 교정시설 유치 등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와 사회단체,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석탄산업을 대체할 산업들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고 사업의 성공여부도 불투명하여 폐광을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상의에서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폐광 이후의 신산업동력확보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 중인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갱도를 활용한 지하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광산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폐광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여, 낙후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태백시를 비롯한 강원 남부 지역주민과 지역상공인의 뜻을 모

아 건의드리오니, 특단의 조치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태백시는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지역경기 침체가 이어져 2016년 정부가 석탄공사를 기능조정 대상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광산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전출인구의 증가세가 지속되어, 2021년 12월 기준 인구 4만 844명으로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2년도에 인구 4만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예상 계획대로 2024년 말 장성광업소가 폐광된다면, 현재 근로 중인 광산근로자 558명과 수 천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지역 상권이 붕괴되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 할 것입니다.
-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되는 중요 DATA에 대한 해킹 및 사이버테러로 2011년 4월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2013년 3월 20일 사이버테러 인한 금융권 백업 센터 기능 마비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국가적 재난 발생에 대비한 정보자료의 분산 보관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 해외 타 국가의 선례¹⁾로 ▲중국 귀주성 텐센트 데이터센터, ▲스웨덴 반호프 데이터센터, ▲노르웨이 Lefdal Mine 데이터 센터, Green Mountain 데이터센터 등이 지하에 운영 또는 설립중에 있으며, ▲대만 시립 황금박물관, ▲일본 나오시마 지중 미술관 등 데이터 외에도 중요 역사자료나 유물 보관을 지하 빙커화 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이러한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 분단국가로 전쟁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국가임에도 유사시 자료 보존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1) 인터오션엠에스(주)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하데이터 구축 사업제안(2018.6) 참조.

- 이에 국가 중요정보에 대한 안전한 보관을 위해 지역의 폐광도를 재활용하여 지역 대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방대한 면적의 지하자원을 흙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닌 유용한 국가 정보자료 복구시설로 구축한다면 국가적·지역 사회적인 일거양득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표1 참조.)

표1) 폐광시 발생할 문제점과 폐광도를 활용한 지하 데이터센터 구축의 기대효과

	문 제 점	기대 효과
국 가	국가 중요 자산인 국가기록물의 보관 시스템 부족 국가 재난시 정보 데이터 손실 우려	국가기록물, 공공정보 데이터 등 중요 정보자산의 분산 보관으로 안전한 보관과 관리
	지역 경제발전 불균형과 국가 및 공기업에 대한 이미지 실추	지역경제 균형발전과 국가 및 공기업 이미지 개선
지역사회	폐광 후 광산근로자들의 생계 보장 곤란	폐광 후 광산근로자들의 고용승계로 생계 보장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로 지역 소멸의 위험	500여명의 상주고용 일자리 창출 및 데이터 가공 처리인력 등 약 3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관광방문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인터오션엠에스(주)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하 데이터 구축사업 제안 (2018.6) 참조.

-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해 6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국내 폐광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폐광도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용역 결과 태백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최적지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폐광이후 대체 산업으로 현재에도 많은 대체 산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장 현실성이 높은 대체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어 침체되는 지역에 활기를 찾아 줄 신사업으로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 건의사항

첫째, 폐광에 대비한 지역 대체 산업으로 국가에서 추진중인 지하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용역 결과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발표된 태백 장성광업소 폐갱구를 폐광 후 지역경기 활성화 및 광산근로자의 퇴직 후 일자리로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둘째, 현재 천재지변이나 전쟁, 테러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 데이터 보관 시설의 구비로 중요 기록물과 정보자료에 대한 안전한 보관·보존 및 추후 센터 일부 구역을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셋째, 500여명의 상주 인력 등 데이터 가공 처리에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관사업체 유치로 폐광지역 경제발전의 계기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므로 상공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호소하오니 특단의 조치를 바라마지 않습니다.